

여수시, 고용노동부 추진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사업 공모 선정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선정...9억2천900여만 원 확보 166명 신중년 일자리 창출...내년 3월 중 참여자 모집

여수시(시장 권오봉)는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에 4년 연속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공모 선정으로 3개 사업에 9억 2천900여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166명의 신중년 일자리를 창출한다.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은 퇴직

한 신중년(5060세대)들의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활용해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역 사회에서 신중년의 역할을 강화하는 동시에 퇴직 신중년들이 민간일자리로 재취업할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시는 내년 3월 중 참여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참여대상은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의 미취업자이면서 행정·홍보·마케팅 등 관련 경력 5년 이상 및 관련 자격을 보유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신중년 전문지식인력의 지역사회 역할을 강화하고 소득 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정부 일자리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많은 시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 등 공모에 선정돼 국비 포함 10억 6천700만 원을 들여 약 300명의 신중년 일자리를 창출해왔다. 또한 '경도해양관광단지 개발에 따른 지역민 맞춤형 일자리', '중장년층 직접 일자리', '청년 일자리' 등 다양한 일자리 발굴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여수=이문석 기자

광양 '한국창의예술고등학교' 신입생 모집

음악과 40명·미술과 20명

전남지역 첫 공립 예술고등학교인 '한국창의예술고등학교'가 2021년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모집인원은 창의음악과 40명, 창의미술과 20명 등 총 60명으로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입학 원서를 접수한다.

예비소집은 28일 한국창의예술고 체육관에서 진행된다. 실기 고사는 29일이며, 합격자는 11월 4일 발표한다.

지원자격은 2021년 2월 전국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이거나 졸업자,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및 중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의 학력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면 지원할 수 있다.

전형방법은 400점 만점에 창의음악과 160점(40%), 실기성적 200점(50%), 면접 40점(10%)이며, 창의미술과는 내신성적 240점(60%), 실기성적 120점(30%), 면접 40점(10%)이다. 실기 고사 성적이 50% 미만이면 불합격 처리되고, 이중지원 사실이 확인되면 추후에도 합격이 취소될 수 있다.

'한국창의예술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타지역 예술고와는 차별화된 교육 환경에서 수업을 받게 된다.

우선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이 거의 없다. 일반적으로 예술고등학교의 수업료는 정규 학비와 학생 개인 학습비 등을 포함해 적게는 연 300만 원에서 많은 곳은 1천만 원까지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창의예술고등학교'는 광양시외의 학교 운영비 지원 업무협약에 따라 매년 10억 원씩 10년간 총 100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어 학생 개별적으로

로 납부하는 교육비가 없다.

또한 광양시에서 지원한 예산으로 세계 유수의 예술 도시를 방문할 수업을 받을 수 있다.

음악과 학생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음악원에서 수업을 듣고 공부할 수 있으며, 여건이 되면 국립음악원 교수가 직접 한국을 방문해 학생들을 지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5월에 두 학교는 학교 간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미술과 학생은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미술관을 탐방하고 현지 유명 작가의 개인 연습실에서 워크숍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학생들의 해외연수 역시 광양시의 지원으로 이뤄지기에 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은 없다.

올해부터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22명의 음악·미술 분야 강사들은 석박사 자격을 취득하고 전국 유수의 대학에서 강의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해 수도권 예술고등학교에 전혀 뒤지지 않는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학교시설과 주변 환경도 전국 최고 수준이라 할 수 있다.

광양 마동저수지와 숲으로 둘러싸인 부지에 연면적 1만1천10㎡(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된 학교 건물은 55개의 개인 연습실과 실습실, 다목적 강당, 기숙사 등이 갖춰져 있다.

학생들이 실습용으로 사용하는 악기와 교구들은 학생 정원에 맞게 부족함 없이 구비돼 있으며, 교구 하나하나도 상위 수준의 고가 제품이다.

/광양=오승택 기자 ost6002@

구례군, 송만갑판소리대회 개최

구례군(군수 김순호)이 주최하고 (사)한국국악협회 구례군지부(지부장 유순자)가 주관하는 '제24회 송만갑판소리·고수대회'가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2일간 구례실내체육관 및 동편제판소리전수관에서 개최됐다.

당초 동편제판소리대회 중에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축제는 취소되고, 경연대회만 개최됐다.

올해로 스물 네번째를 맞이한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무관중방식으로 진행됐다.

또한, 예선을 2곳(실내체육관, 동편제 판소리전수관)에서 진행해 참가인원을 분산시켰으며 대회장 안팎으로 철저한 소독을 실시하며 진행했다.

이번 대회는 220명이 참가해 열띤 경연을 펼쳤으며 판소리 부문 명창부 대상인 대통령상에 유민희(35세, 구례출신)씨가 선정돼 부상으로 상금 2천만 원을 수상했다.

고수 부문 명고부 대상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에 최재명(20세, 서울예대출)씨가, 전라남도지사상인 명창부 최우수상에 박애란(22세, 경기 성남)씨가 선정돼 부상으로 각각 3백만 원을 수상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대회 개최를 결정하는 것만으로도 어려움이 많았다"며 "동편제 판소리의 명맥을 이어 온 우리군에서 대회를 취소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개최할 수 있어 기쁘며, 내년에는 동편제판소리와 더불어 판소리의 정통성과 대중성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풍성한 문화예술축제를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구례=심건식 기자 sgeonsik@



순천시는 지난 7일 서면 행정복지센터를 시작으로 10월 한달 간 11개 읍·면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마을복지계획 수립 전문가 컨설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순천시 제공

순천, 읍·면 마을복지계획 수립 컨설팅 실시

5년간 주민 주도 복지사업 분석 및 2021년 추진 사업 논의

순천시는 지난 7일 서면 행정복지센터를 시작으로 10월 한달 간 11개 읍·면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마을복지계획 수립 전문가 컨설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마을 복지계획 수립 컨설팅은 순천 YMCA에서 주민자치형 복지서비스 의미, 최근 5년간 주민주도 복지사업 및 지역여건 분석, 2021년 추진사업 발굴 순으로 진행하며, 읍·면 지역보장협의체와 주

민자치회 봉사분과 위원들이 참여한다. 읍·면별 컨설팅이 마무리 되면 컨설팅 참여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100인 원탁회의를 통해 마을복지 비전 수립을 최종 발표하고 공유할 계획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마을복지계획 수립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복지 리더들이 마을 복지사업을 되돌아 보고 복지역량을 키워 주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게 될 것

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순천시는 취약계층 중심의 복지서비스에서 모두가 행복한 포용적 복지로 나아가기 위해 읍면동 중심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팀을 확대하고, 지역별 민·관 연계 협력을 강화하면서 주민 스스로가 마을 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지난 2019년에는 13개 동에 대해 컨설팅을 추진한 바 있다. /순천=오승택 기자 ost6002@

곡성, 청년농업인 위한 경영실습대농장 착공

곡성군(군수 유근기)이 최근 곁면에 청년농업인 경영실습대농장을 착공했다고 밝혔다.

청년농업인 경영실습대농장은 청년농들이 영농 경험을 쌓아 실패를 최소화하기 위한 곳이다. 청년농에게 최적화된 현대식 스마트 온실로 조성되며 저렴한 임대료로 이용 가능하다. 곡성군에서는 2동(토경 1, 양액 1)을 준공해 청년농 2명에게 임대한다는 것을 목표로 이번에

먼저 1동에 대해 착공하게 됐다. 준공 이후 곡성군은 일정한 과정을 거쳐 대상자를 선발하게 된다.

만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의 청년 창업농이 1순위 대상자다. 신청을 위해서는 연 136시간의 의무교육과 재해보험 가입, 분기별 경영장부, 영농일지기록 제출 등이 필수적이다.

현재 공사 중인 농장은 올해 11월 중 준공 예정이다. 원활한 임대사업 추진을 위해 10월 말경부터 군 홈페이지 및 읍면 산업계를 통해 임차인을 모집할 예정이다. /곡성=심선섭 기자 sss2634@

틀린그림 찾기

안전띠는 생명선입니다.
전 좌석 안전띠 착용으로 소중한 생명을 지키세요.